백두산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44호 - 주체91(2002)년 5월 28일 (화)　　백두산 편집부

사회 각계, 《주적》표현 삭제 목소리 고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22일 《통일연세 6.15민족통일대축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날부터 6월 5일까지를 《주적론》철회를 위한 집중투쟁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주최측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반통일세력과의 집중투쟁기간선포와 관련한 취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취지문은 국방부가 《주적》표현을 고수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반통일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언급하고 군사작전지휘권이 미국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여건에서 《주적론》은 긴장격화의 결정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민련 부경연합은 국방부는 대북 《주적》표현을 삭제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일부 반통일보수세력과 국방부당국이 《2002년 국방백서》에서 안보를 구실로 《주적》표현삭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대북 《주적》표현을 즉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미교포단체인 평화문제연구소 아메리카주지역후원회 성원들이 군당국의 냉전적 사고방식의 산물이라면서 그를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이북을 여전히 《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각계 민중의 일치한 의사를 반영한 정당한 요구라 하겠습니다.

지금 7천만 겨레는 6.15공동선언정신에 따라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속히 이룩하는데서 걸림돌은 이남 당국이 외세의존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작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화해와 협력, 교류, 평화 상대방인 이북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철회해야 합니다. 대화상대방인 이북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을 철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통일논의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화해와 협력도 원만히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당국이 모를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당국이 《주적론》을 즉시 철회하라는 각계 민중의 정당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 것은 북을 심히 자극하고 국민들속에 반북대결의식을 고취해 통일을 요원하게 만들려는 용납못할 반민족반통일작태입니다.

사태는 당국이 운운하는 화해요, 협력이요, 대화요하는 것이 완전한 거짓말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이북과의 대결, 전쟁뿐이라는 걸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군당국이 북을 심히 자극하는 《주적론》을 철회하지 않아 남북관계를 또다시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게 한다면 그 죄악의 댓가를 천백배로 치르게 되리라고 봅니다.

**** 군당국은 각계 민중의 요구대로 반북대결광증이 들어찬 《주적론》을 즉시 철회하고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일체의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6일

절세의 위인들을 모신 조선인민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쇼지 샤브돌로브가 조선인민은 절세의 위인들을 모신 가장 위대한 인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방문 인상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굳건히 고수할수 있는 길을 밝혀 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안겨 주시였다.

오늘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해 빛나게 계승완성되고 있다.

위인으로서의 모든 품격과 자질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신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것은 인류의 커다란 행운이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그처럼 엄혹한 시기에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혁명앞에 가로 놓인 준엄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시면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를 안아 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사회주의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태양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2002/05/25 조선중앙통신

위인들을 칭송하는 시들 창작

조선주재 팔레스티나대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칭송하여 조선주재 팔레스티나대사 샤히르 무함마드 아브둘라흐가 2편의 시를 창작하였다.

시 《영생하시는 수령님에 대한 추억》에서 그는 **김일성**주석은 민족의 존엄을 지켜 강군의 수호를 받는 강국을 일떠세우셨다고 썼다.

그는 주석의 거룩한 모습은 강성대국건설에로 인민을 불러 일으키고 인민들은 만복을 누리며 절절한 그리움 안고 그이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시 《조선인민군창건 일흔돐에 드린다》에서 대사는 천재적지략과 무비의 담력,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의 한길을 따라 승리만을 이룩한 조선인민군의 진두에 서계신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장군님께 충실한 군대와 인민이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치였기에 조선인민의 세기적숙망인 통일은 실현되리라고 강조하였다.

2002/05/26 조선중앙통신

2 종합
- 40여개 나라 인사들, **김정일**영도자께 편지
- 신문들, 총련 건설 47돐을 기념
- 《아리랑》은 세계 최고의 대걸작품
- 해상 《자위대》 함선들의 인디아양 파견기간 연장을 비난
- 미군철수는 시대의 요구이다
- 민간통일운동, 누군되고 누군 안되나?
- 국민 절대다수 이회창 망언 규탄

4 노작
-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3)

6 세기와 더불어
- 9장 1절 조선인민혁명군(1)

8 칭송
-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기 인민을 믿으시고 《불가능》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9 노동신문
- 민족 통일염원 반영한 시대의 걸작(2)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평등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조국통일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
- 《F-15》 강매하려는 미국의 속셈
- 반미투쟁으로 미국의 죄악 청산하자

13 투쟁보도
- 최종길교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
- 최종길교수 공권력 사망 결정 의미
- 진실규명 기다리는 동의대 사건
- 민노당 김석준 부산시장후보 상승세
- 조건없는 월드컵무파업 강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

15 운동강좌
- 조미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1)

40여개 나라 인사들, 김정일영도자께 편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에 즈음해 러시아, 이탈리아를 비롯한 40여개 나라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 국제기구인사들,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친선단체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건군절에 즈음해 **김정일**영도자님께 가장 뜨거운 인사와 열렬한 축하를 드렸습니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인민군의 70년 역사는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한 영도밑에 조국을 광복하고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존엄과 **를 지켜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무력으로 담보해온 승리와 영광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인민군은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고 있다면서 오늘 인민군대는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부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춘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도자님의 독창적인 선군혁명영도밑에 인민군은 복잡한 세계 정치파동속에서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지적했습니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26일

신문들, 총련결성 47돐을 기념

25일부 평양의 신문들이 총련결성 47돐을 기념하였다.

≪로동신문≫은 총련이 걸어 온 47년의 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해 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며 애국애족의 기치높이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를 창조한 승리의 력사로 빛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총련의 결성은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의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과 재일동포들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온 력사적사변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총련은 내외반동들의 반총련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조직의 합법적지위을 고수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연한 조직체계와 사업체계를 세우고 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합을 이룩하였다.

총련은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존엄을 지켜 힘차게 투쟁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한 전호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총련은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싸워 조국통일운동을 전 민족적범위로 확대발전시키고 민족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총련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고 재일조선인운동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민주조선≫은 사설에서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주체적인 민족적애국운동의 한길로 힘차게 이끌어 주시여 총련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2/05/25 조선중앙통신

≪아리랑≫은 세계최고의 대걸작품

외국손님들속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주재 뮨헨국제전람지도국 국장 로날드 운터버거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세계 최고의 대걸작품이라고 하면서 난생 처음 황홀하고 희한한 공연을 보았다고 말하였다.

로씨야루드고르마슈회사 부총지배인 와체슬라브 아쎄예브는 공연을 보고 받은 흥분을 무슨 말로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신비경을 펼치는 배경대의 조화는 자기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기였다고 말하였다.

일본손님 쯔지노 히로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리랑≫공연이 정말 훌륭하다.

말은 많이 듣고 텔레비죤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았지만 실지 와서 직접 보니 상상을 초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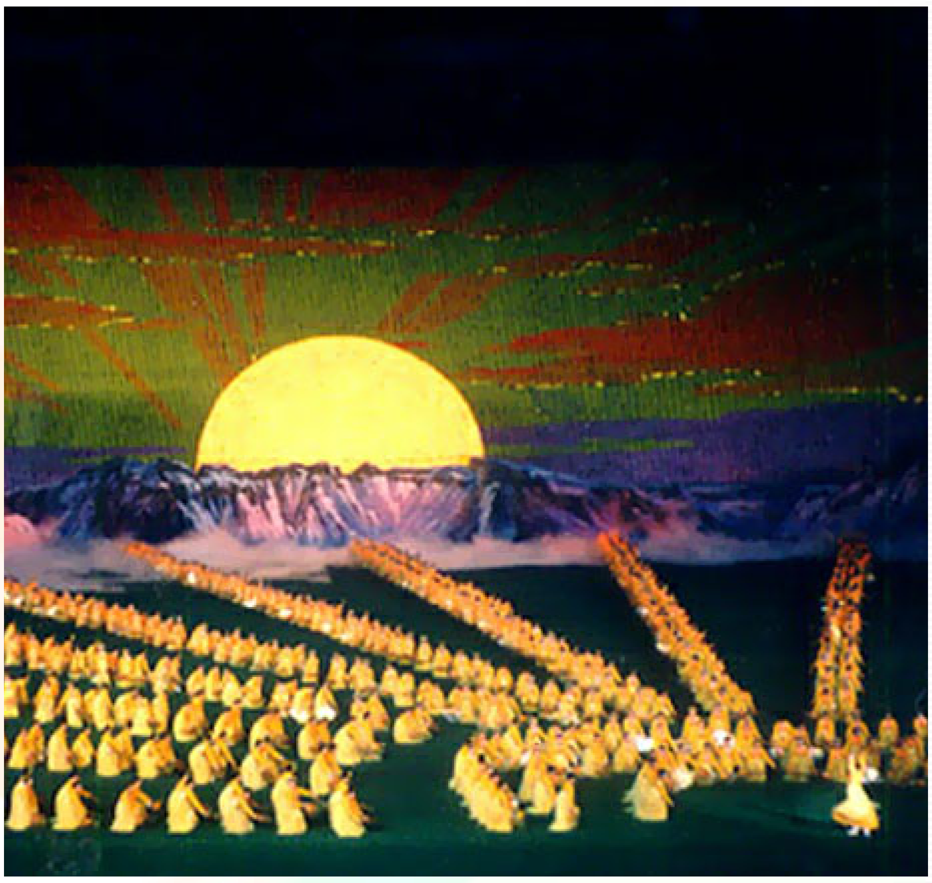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공연이다.

조선의 집단체조는 최고의 최고이다.

이딸리아손님 시에라 마르띠노는 신비경을 이루는 공연장면들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배경대의 조화는 놀랍기만 하다고 하면서 레이자조명이 잘 배합된 화려한 화폭들은 자기에게 마치 신비의 세계에 들어선듯한 감흥을 안겨 주었다고 말하였다.

일본손님 오까다 나오끼는 공연을 보고 조선의 위력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공연은 조선에서만 창조될 수 있는 대걸작이라고 말하였다.

2002/05/25 조선중앙통신



해상≪자위대≫함선들의 인디아양파견기간 연장을 비난

25일부 ≪로동신문≫은 일본정부가 해상≪자위대≫함선들의 인디아양파견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론평을 실었다.

신문은 이번에 ≪자위대≫함선들의 파견기간연장으로 일본은 앞으로 해외에서 더 큰 군사행동을 벌릴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하였으며 따라서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일본의 군사행동이 보다 엄중한 단계에 들어 서게 될것은 뻔하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일본의 ≪대미병참지원≫작전기간의 연장은 당면하여 미국의 대이라크공격작전을 앞에 두고 취해 진것으로 하여 더욱 주목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의 ≪대미병참지원≫작전기간 연장은 결국 아시아나라들을 반대하는 위험한 군사행동이며 전쟁의 재난을 몰아 오는것으로 된다.

일본반동들은 ≪테로대처≫의 미명하에 말썽 많은 ≪유사시관련법안≫을 채택하여 전시체제를 수립하고 임의의 시각에 나라의 모든것을 해외침략에 동원할수 있게 만들려 하고 있다.

론평은 일본에 패망의 교훈을 잊지 않고 앞날을 걱정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위험한 길로 나가는 현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02/05/25 조선중앙통신

미군철수는 시대의 요구이다

25일부 ≪민주조선≫은 최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정책을 반대하는 내외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전례없이 높아 지고 있는것과 관련한 론평을 실었다.

론평의 필자는 이것은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정책이 시대착오적인것이며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문제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장기주둔, 영구강점을 꾀하고 있는 리유는 랭전체제가 붕괴된 오늘에 와서 국제적범위에서 자기독주의 새로운 지배체제를 확립하려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그 누구도 미국이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미기운이 날로 높아 지고 있는것도 그러한 반영의 하나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미국은 반미로 나가는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미군철수용단을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02/05/25 조선중앙통신

민간통일운동 ≪누군되고 누군안되나?≫

통일연대, 6.15행사 성사 요구하며 농성 들어가

≪통일부의 범민련, 한총련 선별 불허는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거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통일연대가 범민련, 한총련의 조건없는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보장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다.

27일 오전 11시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6.15 공동선언 고수 이행,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와 범민련 한총련 조건없는 참가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그 자리에서 노상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일연대는 지난 8일 통일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통해 보낸 북측의 초청장을 ≪공식≫인정 하지 않고 ≪서류미비≫로 남북 민간급 실무회담을 불허한데 대해 공동선언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의장은 기자회견 취지설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으로 통

일운동 단체를 선별해서 통제하려는 통일부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며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올해의 의의에 맞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이회창 후보의 공동선언 2항에 대한 발언을 비판하고, 미국의 이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금강산댐 위성 자료 제공 등 반북대결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통일부가 수구보수세력의 6.15 공동선언 파탄음모에 짓눌려 지난 5차 장관급 회담의 합의를 무시하고 민간급 통일운동을 가로막고 있다≫며 ≪범민련 한총련을 포함한 모든 통일운동 단체들이 어떤 구속이나 배제됨 없이 통일대축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농성을 시작했다.

범민련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시작된 농성은 다음달 15일 6.15 민족통일대축전 남측행사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며 명동성당측에서 천막설치에 반대함에 따라, 노상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실무회담 불허와 관련 ≪작년 8.15 대축전 이후 국회와 언론에 의해 ≪방북 승인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그 기준에 의거해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경유한 팩스는 ≪합법적 경로가 아니다≫는 이유로 ≪서류미비≫로 처리했으며, 따라서 이 문제의 책임은 기존의 북경 경로가 아닌 공동사무국의 경로로 바꾼 북측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북은 17일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통일부는 초청장을 보낸 ≪경로≫에 대해 운운하면서 우리가 보낸 공식 초청문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남측대표들의 금강산길을 가로막았다≫며 ≪남측당국이 6.15공동선언 리행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지지하고 실천하려는 남조선의 모든 단체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그들의 통일운동을 적극 떠밀어주는 립장에 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장동렬 기자
2002/05/27 통일뉴스

국민 절대다수 이회창 망언 규탄

국민의 절대다수가 6.15공동선언 제2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떠든 이회창의 주장을 민족자주통일을 전면 부정하는 망언으로 지탄하며 그를 정계에서 즉각 제거해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조사단체인 ≪바른소리센터≫가 24일 경인지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6%가 이회창의 망언에 강한 반대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이회창이 온 겨레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열렬히 지지환영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에 반기를 들다 못해 그의 ≪폐기≫까지 운운하고 있는 것은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7천만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며 이런 자가 아직까지 정치인이랍시며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 수치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이회창이 6.15공동선언 폐기를 운운하고 나선 것은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돌려세워 6.15공동선언 자체를 깨어버리려는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런 극악한 민족반역자 반통일분자는 대선후보에서 퇴진시키고 정치권에서 축출, 매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이회창이 하는 짓이란 어느 것이나 민족에게 해를 주는 것 뿐이라면서 이런 정신병자, 민족의 화근은 빨리 제거해버릴수록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26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3)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김정일장군님 - 주체81(1992)년 5월 23일

1) 민족의 운명문제에 대한 예술적 해명

오늘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은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하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족문제는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인공적인 민족분단의 비극을 겪고 있은 우리 나라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역사적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반세기동안 어느 하루도 우리 민족이 겪고 있은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잊으신 적이 없으며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하시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수령님께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수령님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 사업은 정치적 공세, 정치선전만 하여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마음을 움직이는데서 문학예술이 큰 역할을 합니다. 정치가 뚫고 들어가기 힘든 곳도 문학예술은 뚫고들어갈 수 있으며 총포를 가지고 쟁취할 수 없는 것도 문학예술을 가지고 쟁취할 수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이바지하는데서 문학예술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북과 남의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을 민족대단결의 길로, 조국통일의 길로 이끌어나가는데서 선도자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작품이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자면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의 총적 사명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인 것만큼 마땅히 모든 문학예술작품에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이 꽉 들어차야 합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내가 직접 종자를 잡아주고 나의 구상과 의도밑에 창작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이 더욱 철저히 구현되어야 합니다.

문학예술작품에 혁명적 수령관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명적 수령관은 우리 인민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우리 인민의 사상과 이념에 관통되어 있은 근본핵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며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자세와 입장을 떠나서는 혁명적 수령관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그어느 나라에도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쳐오신 우리 수령님 같은 위대한 분은 없으며 우리 수령님이 제일이라는 것이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철석같이 간직된 신념이며 수령님을 천만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려는 것이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신조이고 의지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수령님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 수령님의 높은 권위에 의거한다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지난날 공산주의라고 하면 덮어놓고 등을 돌려대고 지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와 손잡고 나아가고 있은 것도 다 우리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대성에 매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령님의 높은 권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가 세계에 존엄을 떨치게 되었고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열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상가, 탁월한 정치가, 천재적인 전략가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높은 권위를 깊이 인식시키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과 흠모의 정을 키워주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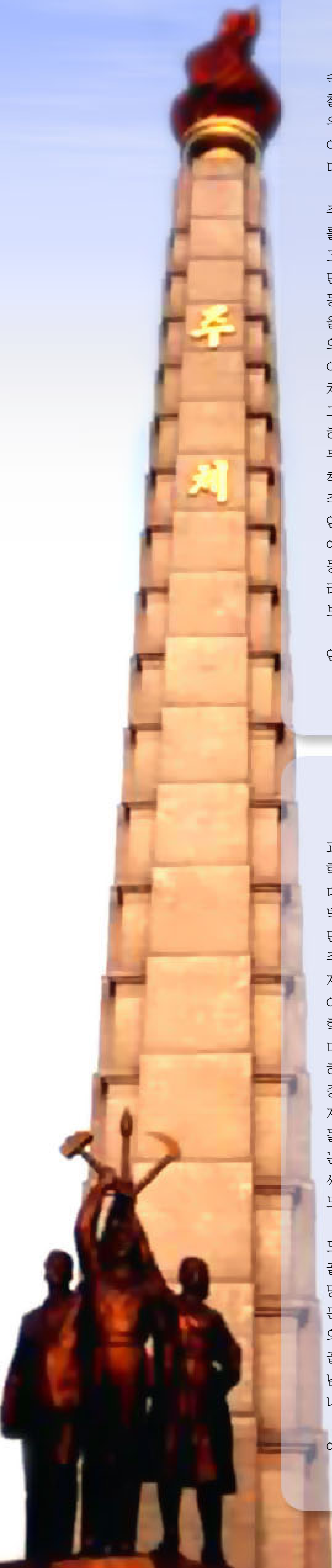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연속편에서는 공산주의자뿐 아니라 민족주의자, 양심적인종교인, 기업가를 비롯하여 각이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운명문제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지난날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일신의 안락과 영달을 위해 동분서주해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라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라와 민족의 편에 돌아서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연속편에서는 각이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다양한 인물을 그리면서도 수령님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그려야 합니다. 영화에서는 그런 인물의 곡절많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이 세상 그 어디를 돌아다녀보아도 우리 수령님 같은 분은 없으며 오직 수령님 품에 안길 때에만 민족의 운명이 구원되고 자신의 삶도 빛내일 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옳게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상을 깊이있게 밝히는 것입니다. 역사발전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입니다. 일부 나라들의 문학예술작품을 보면 수령을 한갓 개인으로 보고 그리기 때문에 수령의 생활을 보여준다는 명목밑에 일반개인들과 다름없는 사말사를 펼쳐놓거나 수령의 인격에 어울리지 않는 세부를 보여주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수령을 개인으로 보고 그리면 혁명투쟁과 역사발전에서 수령이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수 없으며 수령의 형상이 일반개인들의 형상과 다름없이 되고 맙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수령의 생활과 투쟁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게 되며 사람들에게 수령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작하는 작품에서는 수령형상을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수령을 혁명과 건설의 최고뇌수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형상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혁명적 수령관을 구현하는 문제는 수령님을 형상하는 몇몇 작품이나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혁명적 수령관은 우리의 모든 문학예술작품에서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구현되어야 합니다. 비록 수령님을 직접 형상하지 않는 작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영도, 고매한 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뚜렷이 강조되어야 하며 수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수행하는 그 어떤 위업도 인민의 행복도 있을 수 없다는 사상이 힘있게 울려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작품에 주체의 철학적세계관과 인생관을 옳게 구현하여야합니다. 세계에서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우리의 철학적세계관이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한생을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위대한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이민위천》, 《이신위민》의 이념을 좌우명으로 삼아오시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생활신조입니다. 우리는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쳐오신 수령님의 《이민위천》, 《이신위민》의 뜻을 이어받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이바지하는데서 문학예술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북과 남의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을 민족대단결의 길로, 조국통일의 길로 이끌어나가는데서 선도자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속편을 비롯한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깊이있게 풀어야 합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는 주인공 최현덕, 윤상민, 차홍기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와 자본주의제도의 진면모와 반동성을 적라라하게 폭로하면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이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대비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이처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그 어떤 물질적 관계보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우리 당과 정부의 인민적인 시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는데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긍정적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철통같이 뭉쳐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있은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행복상을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학예술작품에 주체의 철학적세계관과 인생관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생활의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중심의 관점과 입장에서 분석평가하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우리의 모든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도 인민대중이고 가장 힘있는 존재도 인민대중이라는 사상이 힘있게 울려나와야 합니다. 인민대중중심의 관점과 입장은 사상적내용에서 뿐아니라 예술적 형식을 탐구하는데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작품평가의 기본척도입니다. 인민대중이 좋다고 평가하는 작품이라야 잘된 작품이며 대중이 좋아하지 않는 작품은 잘된 작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사상적 내용과 예술적 형식의 모든 면에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는데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혁명적 낙관주의를 깊이있게 구현하여야 합니다. 혁명적 낙관주의는 노동계급의 역사적 사명과 혁명위업의 정당성, 승리의 필연성을 굳게 믿고 그 어떤 간고한 조건에서도 절개를 굽히지 않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며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언제나 낙관적으로 생활하고 투쟁하는 고상한 사상감정입니다.

오늘 정세가 긴장하고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년간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였다고 하여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전도는 양양하며 낙관적입니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남들이 어떻게 하건, 무엇이라고 하건 관계없이 자기 신념과 결심에 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길을 개척하고 지켜온 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긍지높은 일인가 하는 것을 실증하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래에도 있지만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하고 개척하여온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옹호고수해 나가야 합니다. 그 어떤 원쑤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작품에 우리의 이러한 낙관적인 의지를 깊이있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혁명적 낙관주의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를 확신할 때 가지게 됩니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자주성의 시대인 우리 시대에는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만이 백전백승의 길이며 우리가 가는 길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진리를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문학예술작품에 자기 위력에 대한 굳은 확신을 잘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혁명과 건설을 주견있게 밀고나갈 수 없으며 자그마한 난관 앞에서도 주저하고 동요하게 됩니다. 우리의 위력은 곧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위력이며 그 힘을 당해낼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의 힘에 대한 굳은 확신이 차넘치는 좋은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인민이 용기백배하여 투쟁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작품에 그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주체의 혁명적 신념과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백절불굴의 의지와 혁명적 지조를 잘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작품은 혁명의 변절자들이 사회주의를 줴버린다 하여도 우리는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는 드놀지 않는 신념을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어야 합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의 미학관과 문예관을 작품에 잘 구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이 좋아하고 우리 민족의 감정에 맞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체의 미학관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입니다. 주체의 미학관은 역사상 처음으로 아름다운 것의 본질과 그 기준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란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맞으며 사람에 의하여 정서적으로 파악되는 사물현상을 말하며 그 기준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입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되며 맞지 않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됩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의 미학관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인민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야 합니다.

주체의 문예관은 인간중심의 문예관입니다. 문학예술은 산 인간을 그리고 인간에게 복무하는 인간학으로 되어야 하며 우리 시대의 참다운 문학예술은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어야 합니다.

주체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하는데서는 심오한 인간문제를 안고 있은 새롭고 의의있는 종자를 내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자문제를 인간학의 기본요구로 내세우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창작의 목적이 어떤 심심풀이나 유흥거리를 만들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활의 본질을 깊이 깨우쳐주고 그들을 사상정서적으로 교양하자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종자는 바로 사람들이 받아안게될 사상정서적 양식의 핵입니다. 종자가 있어야 작품의 사상미학적의도가 명백해지고 형상의 철학적 심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이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자면 사건보다 성격을 중시하여야 합니다. 작품에 사건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사건이 인물성격형상을 중심에 놓고 펼쳐져야 하며 성격과 성격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생기는 사건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사건을 보여주는데 치우치지 말고 인물성격을 깊이 파고드는데 모를 박아야 합니다. 인물성격을 파고드는데서도 그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작품에 주체의 혁명적 수령관, 철학적 세계관, 인생관, 혁명적낙관주의, 미학관, 문예관을 밀접한 통일 속에서 구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문학예술작품이 우리 당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문학예술분야에서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끝)

3권 제9장

제1차 북만원정

1. 조선인민혁명군
2. 부자와 가난뱅이
3. 노야령을 넘어서
4. 영안땅에 모인
하모니카 소리
5. 천교령의 눈보라
6. 인민의 품

1. 조선인민혁명군(1)

백성이 있는 곳에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는 곳에 군대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초보적인 정치상식이다. 모나코와 같은 특수한 몇몇 나라들을 제외한 세계의 대소국가들은 거의 모두가 자체 방위를 위한 민족군대를 가지고 있다. 지구상의 수많은 약소국가들이 식민주의자들의 총몇 방에 자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온 것은 군대가 없었거나 약한 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구한국의 군대도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괴멸되었다. 내란을 평정할 때는 그렇게도 그악스럽던 군대가 외적앞에서는 대포도 변변히 쏘아보지 못하고 삿대질을 얼마간 하다가 주저앉아버렸다. 우리 나라가 망한 데는 국정이 부패한 데도 있었지만 군력이 쇠약한 탓도 있었다.

망한 나라를 찾아보려고 조선의 선각자들은 독립군을 조직하였다. 국권을 강탈당한 민족이 그 국권의 수복을 위해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민족주의자들이 독립군을 조직하여 여러 해 동안 무력항쟁을 해왔다면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유격대를 창건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철추를 내렸다. 소규모의 비밀유격대로 항일장정의 첫걸음을 떼었던 우리의 무장대오가 이제는 간도 모든 현들에서 연대 규모로 발전하였다.

동기≪토벌≫의 포화가 멎은 뒤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른 지방의 유격대 지휘관들과 함께 그 방도를 심중하게 상론하였다. 각 현에 조직되어 있는 유격대의 연대들을 하나의 군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 보나 반일인민유격대 자체 발전의 합법칙성으로 보나 한시도 미루어서는 안 될 초미의 과제로 나섰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것은 장성강화된 유격부대들에 대한 통일적 지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투력을 높이며 일제의 대규모적인 공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혁명군 문제가 처음으로 우리의 논의에 오른 것은 명월구회의 때였다. 그때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의 전망 문제를 논하면서 유격대를 일단 대대 규모로 조직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질량적으로 발전시키다가 때가 되면 대부대 혁명군으로 개편하자고 결의하였다. 물론 이 문제가 회의에서 기본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혁명군대의 장래와 관련된 이 문제를 두고 대표들은 회의장 안팎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대부대 혁명군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는 오빈과 박훈이었다.

식민지나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항쟁무력은 처음에 작은 규모로 조직되는 것이 상례이다. 소규모의 역량으로 무장대오를 조직한 다음 그것을 밑천으로 살금살금 역량을 확대해가다가 조건이 성숙되면 부대들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군을 내온다. 멕시코에서 망명을 끝내고 쿠바로 돌아온 초기의 카스트로 부대는 82명이었다. 그들 중 살아남은 12명이 7자루의 총을 가지고 시에라 마에스트라산에 들어가 대오를 늘리고 힘을 키우다가 아바나에 입성하여 바티스타 친미독재정권을 벼락같이 무너뜨렸다.

1933년 하반기부터 간도에서는 유격대역량을 통합하고 그 지휘체계를 단일화할 데 대한 문제가 중요한 논점으로 상정되었다. 그것은 적의 동기≪토벌≫을 격파하기 위한 마촌작전과 수천 수만 킬로미터의 판도에서 영웅적 방위전이 가르쳐준 교훈이기도 하였다.

작전을 총화하는 자리에서 중대 상호간의 협동 문제, 부대의 통합 문제를 가지고 열변을 토한 것은 소왕청 관내에서 9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시종일관 방위전에 참가전에 2중대장이나 3중대장이 아니라 작전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흥권중대장이었다. 한흥권은 마촌작전과 관련하여 자기네 중대가 받은 임무는 로야령을 넘어 동만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견제하는 것이였는데 그동안 적과 접전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주력부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고 토론하였다. 말하자면 적이 유격근거지를 ≪토벌≫할 때 자기가 적의 뒤통수를 쳐야 하겠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였다.

우리는 그때 그 토론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흥권의 토론은 자기비판적인 것이였으나 그에게는 사실 비판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자기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훌륭한 지휘관이였다.

그러면 그가 왜 자기를 의리도 없고 혁명성도 없고 통찰력도 없는 지휘관이라고 타매하였겠는가. 그가 총화모임에서 강조하려고 한 것은 요컨대 무엇이였겠는가 하는 것이다. 한흥권이 자기를 근시안이라고 자탄할 때 나는 나대로 그를 지도하는 상급의 자각을 가지고 마촌작전이 남긴 심각한 교훈을 도출해냈다. 그것이 바로 수시로 변화되는 전투상황에 맞게 중대 상호간의 협동을 원만히 조직하자면 그를 총괄할 만한 지휘, 참모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자면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훈이였다.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야겠다는 그들의 요구는 결국 반일인민유격대를 통합하여 정연한 군체계를 갖춰야 하겠다는 것이였다.

적의 동기≪토벌≫을 분쇄하기 위한 방위전의 전 과정에서는 각 지방에 산재하고 있던 유격부대들이 익측과의 협동적 연계나 원조도 없이 고군독전하였다.

화룡현의 경우를 보면 적들이 어랑촌 유격근거지에 대한 ≪토벌≫을 시작한 것이 1933년 11월 초라고 한다. 이 첫 ≪토벌≫은 강력한 타격을 받고 일단 좌절되었다가 11월 말부터 단 3일 동안 진행된 2차 ≪토벌≫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싸움의 전부라고 한다. 숫자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어랑촌에 대한 ≪토벌≫은 소왕청에 대한 공격보다 보름 정도나 앞선 것으로 된다. 만일 이런 때 교전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다른 현의 유격부대들이 상호협동의 원칙 밑에서 적들의 배후를 타격한다면 어랑촌유격대는 한결 험한 싸움을 했을 것이였다.

연길현이나 훈춘현의 사정도 이와 대동소이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유격구마다 ≪토벌≫을 당하는 시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각 현과 구에 있는 유격부대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단일한 지휘체계가 있고 참모기구만 있으면 모든 유격대들이 서로 손발을 맞추어가며 상호협력의 강력한 무기로 싸움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때늦게나마 시사해준다.

그런데 유격대에 대한 지도가 현과 구를 단위로 하여 실현되고 있던 당시의 조건에서는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것은 동기≪토벌≫ 당시의 유격대 지휘체계가 현실적 요구에 수응하지 못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유격대의 지휘는 각급 당군사부가 하게 되어 있었다. 한개 현에 무력이 한두개 중대밖에 없던 유격운동의 초창기에는 전투도 작은 규모로만 하였으므로 현과 구를 단위로 하여 군대를 지휘하는 체계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유격대의 대오가 확대되고 적들의 ≪토벌≫역량도 백단위로부터 천 단위나 만 단위로 껑충 뛰어올라간 형편에서는 작은 전투만 골라가며 할 수도 없었다. 전투란 교전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적들이 역량을 끊임없이 증강해가며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조건에서 우리도 맞불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적들이 사방에서 무슨 사단, 무슨 여단, 무슨 연대하며 무력을 긁어 모아가지고 대부대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힘을 합치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뿔뿔이 엎뎌 제가끔씩 뚱땅거리기만 하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가? 큰 도시나 성시를 치러 갈 때에는 이 현, 저 현에서 인원들을 추려가지고 집중된 역량으로 적을 쳤는데 방어전에서는 왜 현별, 유격구별로만 싸워야 하는가?

이것은 마촌작전을 전후한 시기 나를 사로잡고 있던 생각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격운동은 그 내용과 규모에 알맞은 새로운 그릇을 요구하고 있었다. 우리 앞에는 현과 구들에 널려 있는 무장부대들을 한 체계에 묶어세울 수 있는 전환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 요구를 가장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반일인민유격대를 통합하여 대부대 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것이였다.

요영구에 주둔하고 있던 4중대장의 편지도 같은 것을

불패의 혁명대오로 자라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예술영화 - 민족의 태양)

시사해주고 있다. 4중대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마촌작전 총화에 참가하지 못하고 자기 중대의 총화내용을 편지로 써서 마촌에 보내주었다. 그 편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은 중대장의 전령병으로 일하던 오진우였다. 마촌작전을 총화하면서 나는 반일인민유격대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중히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주진, 양성룡 등과 자주 협의하였다.

어느날 나는 양성룡이네 집에 가서 기타를 탔다. 내가 기타를 탄 것은 마음이 흥겹거나 편안해서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여 그 당시의 나의 심경은 대단히 울적하였다. 마촌작전은 비록 승리로 결속되었으나 유격구는 가슴을 파내려는 고통에 울고 있었다. 우리와 생사를 같이하던 수많은 얼굴들이 진토 속에 묻혀 일어나지 못하였다. 마지막 한 대의 서까래마저 다 타버린 잿무지 위에서 집들을 다시 일떠세우고 생활을 새롭게 조직해 나간다는 것은 조련치 않은 일이었다.

군사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 양성룡을 찾아갔는데 그도 침울한 기색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어젯날의 대대장은 ≪민생단≫감투를 쓰고 구금되었던 것을 몹시 분하게 여기고 있었다. 우리가 보증을 서서 겨우 감옥신세는 면했지만 그는 복직되지 못하였다. 그는 소왕청과 라자구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양식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토벌≫에 아내와 어머니를 잃고 나서는 더 과묵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대부대 혁명군 조직에 대한 화제를 꺼내자 그는 대뜸 반색을 하면서 범상치 않은 열의를 보냈다.

≪문제는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부대들을 통합하는가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오.≫

양성룡은 찬성, 불찬성이라는 말은 일어반구도 하지 않았지만 형식과 방법 문제를 상정시키는 방법으로 군조직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가 제일 걱정한 것은 반≪민생단≫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배타적 기분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바로 거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고충이 있었고 그러한 난점들을 용의주도하고 원만하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식의 원리와 자막대기로 재고 내려먹이던 ≪국제노선≫이 득세하고 이른바 계급적 이익과 국제적 연대성의 이름 밑에 민족적 전통과 지향을 한마디로 민족주의적 편향으로 통렬히 공격하던 그 시기 남의 나라 땅에서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독자적인 무력건설 구상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반일인민유격대를 대부대 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진도 찬성하였다. 성격이 괄괄하고 대범한 주진은 내가 말을 꺼내기 바쁘게 격렬한 손짓을 해가면서 부대들을 통합해가지고 큼직큼직하게 싸움을 해보자고 말하였다. 나는 큼직큼직하게 싸우자는 그 표현이 못내 마음에 들었다. 그것은 간도의 조선사람들이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한 호걸남아 주진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통쾌한 표현이었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부대들을 통합하여 독자적인 혁명군을 내오게 되면 ≪조선연장주의≫ 감투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감투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하루속히 일을 내밀자고 하였다.

동장영과 같은 사람도 우리의 구상을 지지하였다. 그는 동만에 조직되어 있는 반일인민유격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주동이 되어 조직한 무장력이며 그 구성에서도 조선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 땅에서 조직된 것이기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조선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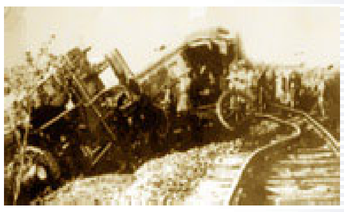
동장영의 이 평가는 조선혁명을 운운하는 것 그 자체가 민족주의로 범죄시되던 당시의 실정에서 아주 공정하고 진보적인 것이었다.

동장영도 정당하게 지적한 것과 같이 동만은 물론, 남만의 이홍광, 이동광, 북만의 허형식, 김책, 이학만, 최용건 등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만주지방의 당 건설에서 선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군건설에서도 개척자, 주창자, 영솔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군을 이루고 있는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절대다수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이었다.

동장영은 군을 내오되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형식과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할 것을 권고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중 쌍방간에 다같은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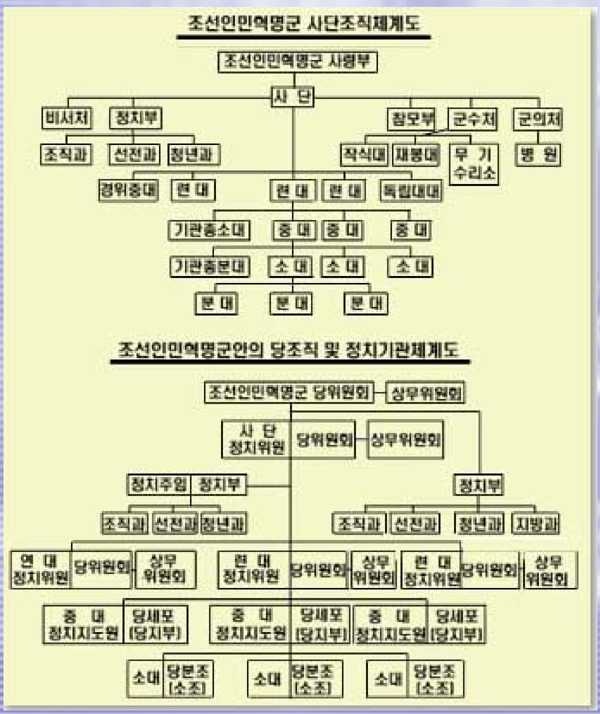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를 대부대 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당 파견원 반성위도 국제당 노선에 부합되는 정당한 방침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었다.

왕청대대를 함께 이끌던 양성룡으로부터 후에 인민혁명군 독립1사사장을 했던 주진, 동만특위와 동장영, 국제당 파견원 반성위에 이르기까지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반일인민유격대를 대부대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할 데 대한 방침을 인식하는데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통합개편된 무장력의 명칭 선택과 그 성격규정에서도 그들은 우리와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하였다.


유격대가 습격파괴한 일제군용열차

우리는 1934년 3월에 정식으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할 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투쟁목적에도 맞고 그것을 담당 수행하는 정치적 역량의 성격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초기에 동만의 일부 지역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공농유격대라고 명명한 것은 그 성격규정에서 계급성 일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서 사회적 해방에 앞서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웠던 우리 혁명의 성격은 물론, 중국공산주의자들이 주관한 동북혁명의 성격에도 맞지 않았다.



항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동만지방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각 현에 있는 유격대 대대들을 연대로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간도지방 유격대의 총 무력은 5개 연대에 달하였다.

각 연대에는 유격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사명으로 하는 정치부를 두고 작전, 정찰, 통신 임무를 담당한 참모부서와 피복, 양식, 군의 사업을 보는 후방처를 설치하였다.

왕청연대는 동만지방 연대무력의 시초로 되었으며 항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제 1단계 준비사업이 낳은 산아들 중 첫 번째 산아로 되었다.

항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데서 우리가 제 2단계의 목표로 설정한 것은 사단체계를 내오는 것이었다.

우리가 사단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마촌작전 과정에서였다. 5000명의 대군을 2개 중대역량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세계전쟁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소부대에 의한 적후교란전으로 유격구 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타개하면서도 줄곧 우리에게 군단은 몰라도 사단급의 무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몇 천 명쯤 되는 무력을 가지고 대포를 꽝꽝 쏘아대면서 대부대활동도 하게 되면 얼마나 성수가 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각 현들에 연대들이 이미 조직되고 또 그 역량도 빠른 속도로 불어가는 조건에서 사단을 조직하는 것은 한시도 지체시킬수 없는 최대의 과제였다.

우리의 목표는 조선인민혁명군 산하에 2개 사단과 1개 독립연대를 선차적으로 꾸리고 그 성과를 확대시켜 장차 수개 사단의 무력을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연길과 화룡에 있는 연대들로 하나의 사단을 꾸리고 훈춘과 왕청에 있는 연대를 기본으로 다른 하나의 사단을 또 편성하기로 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과정에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새로운 당지도 기관으로 출현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군대 안의 당조직에 대한 지도와 함께 지방의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도 동시에 감당하는 무거운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무력의 담보가 없이는 지방당조직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종전까지는 지방당조직들이 군대 안의 당조직까지 지도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사업은 1934년 3월부터 5월 사이의 극히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다.

이 소식에 접한 유격구역 인민들은 앞을 다투어 군대를 지원하고 도처에서 성대한 경축모임들을 준비하였다.

왕청의 여성들은 축기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었고 공청에서는 아동유희대 축하공연을 마련하였으며 여러 가지 체육경기도 벌였다.

연길의 삼도만 유격구역에서는 적 통치구역 대표들까지 참가한 1,000여 명의 군중대회와 시위가 있었다.

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편성에서 조국광복의 앞날을 더욱 뚜렷이 확신하게 되었으며 군대와 일심동체가 되어 항일혁명전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굳은 결의들을 다졌다.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함으로써 보다 넓은 판도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적극적인 대부대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다. 만일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지 않았거나 연대나 사단과 같은 대부대의 군사력을 제때에 마련하지 않았더라면 암운에 덮인 조국을 밝히며 높이 타오른 보천보의 횃불도 마련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무송, 간삼봉, 홍두산, 이명수, 대홍단, 홍기하 등 국내와 만주 도처에서 적의 정예부대들을 죽음의 함정으로 몰아넣은 연전연승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동기≪토벌≫에 이어 유격구를 위협하던 악명 높은 위공작전도 파탄시키지 못하였을 것이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함으로써 우리는 무력항쟁으로 기어이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려는 조선민족의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내일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기 인민을 믿으시고 ≪불가능≫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러시아신문 ≪빠뜨리오뜨≫

러시아신문 ≪빠뜨리오뜨≫제22호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성과적인 발사를 현명하게 이끄신 데 대하여 소개하는 글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발사와 관련한 사진들과 함께 옹근 두 면에 걸쳐 편집하였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일 데 대하여 인민들에게 호소하시면서 그 중요한 방도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그이께서는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중간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동지께서 과학을 중시하신다는 것은 조선에서의 첫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 발사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에서의 인공지구위성개발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의 영도 밑에 진행되였으며 바로 그이에 의하여 우주개발의 시원이 열리였다고 썼다.

신문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우주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설비, 공장들을 국가적으로 보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고 썼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기 인민을 믿으시고 ≪불가능≫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으시며 오직 성공만을 확신하신다. 조선의 우주개발분야 전문가들은 바로 그이의 담대한 기질과 낙관주의가 성공을 안아 온 원동력이였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위성제작자들인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김정일**동지는 단순한 정치적 영도자가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자주 연구집단을 찾으시어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하시고 단계별 목표들과 구체적인 연구과제들을 정해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묘안과 방도들을 깨우쳐주시였다.

독특하게 구성된 다 계단 로케트의 계단별 구성요소도 그이께서 휭겨주신 착상에 따른 것이다.

그이의 선견지명과 과학적 안목을 보여주는 다른 실례들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그이께서는 티탄공업발전과 위성을 위한 다른 특수재료 제작에 관심하시였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따라서 사람의 힘을 발동하면 못해낼 것이 없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시어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높은 지혜에 애국심이 결합되면 그 어떤 과학 기술적 문제도 능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사회주의 조국이 있다≫라는 표어 밑에 보다 새로운 과학성과로 자기의 조국과 사회주의를 빛내어 나가고 있다.

신문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주개발집단의 한 과학자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열거하고 ≪광명성1호≫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불가능하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라는 그이의 명언을 거듭 되새겨 주는 듯 하다고 썼다.

신문은 ≪만능의 보검≫이라는 중간 제목을 달고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놓고 세계의 많은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자력갱생의 위력≫, ≪자력갱생의 승리≫라고 평하였다. 이것은 옳은 평가라고 생각한다. 현 세계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조선이고 이 위성발사가 그 위력을 과시한 대표적 실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자력갱생은 조선의 전통적인 방식이며 기질이다.

과거 식민지통치로부터의 민족해방을 위한 항일무장투쟁과 미국을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침략을 반대하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자기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 건설 등 기적적 사변으로 충만된 조선의 현대사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면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자력갱생이야말로 만능의 보검이라는 진리를 뜨겁게 새겨주었다.

이 진리를 누구보다 철저히 체현하시고 가장 높이 발양하시는 분이 바로 **김정일**영도자이시다.

이미 전에 날 바다를 가로막은 서해갑문을 비롯하여 1만t프레스와 1만 8000㎥ 산소분리기 등 거창한 창조물들을 완전히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우게 하시며 세계를 여러 번 경탄시키신 그이께서는 나라의 인공지구위성개발도 철저히 자력갱생으로 해내도록 하시였다.

조선에서 모든 것이 그러했지만 특히 인공지구위성개발은 자력갱생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였다.

조선의 영도자께서는 이 분야를 개척함에 있어서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그 누구를 넘겨다보거나 그 누구에게 기대를 걸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하시였다. 설계와 기술, 제작과 발사 그 모든 것을 오직 자기의 것, 자기의 힘으로 해나가게 하시였다.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로 보장할 수 있게 빠진 공정과 부문들을 하나하나 완비해주시였다.

그이의 영도 밑에 이미 나라의 축성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막강한 토대가 그것을 원만히 담보해 주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자기의 로케트와 위성 제작을 100프로 국내산에 의거하였다. 조선의 우주개발의 자립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인공지구위성제작을 위한 그 어떤 ≪두뇌반입≫도 없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신문은 우리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은 위성발사를 통하여 자력갱생이 얼마나 위력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만방에 과시하였다.

처음부터 인공위성발사에서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고 또 위성발사기술을 이미 장악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번번히 발사사고를 내고 있는 것이 피치 못할 인류의 우주개발사로 되어 있는데 조선은 자기의 시험위성을 단방에 성공시켰다.

자립으로 우주정복의 길을 헤쳐가면서 조선은 미지의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과학 기술적 문제들도 수많이 해결하였다. 전문가들이 공인하듯이 다 계단 로케트의 분리기술과 3계단의 고성능고체연료에 의한 구형발동기, 유도장치와 제어기술 등은 단연 최상의 수준이다. 러시아와 서방의 우주강국들이 ≪청천벽력≫이라고 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위성개발기술이 현대 최첨단과학기술의 종합체이며 결정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조선의 국력은 과연 얼마만한 높이에 이르렀는가.

그 위력 위에 올라선 조선이 이제 또 어떤 새 기적을 보여줄 것인가,…

이처럼 막강하고 무진장한 힘의 원천, 자력갱생이 세계,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에 미치는 영향은 자못 심원한 것이다.

신문은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데 대하여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자력갱생으로 그 모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낸 조선인민은 지금 그 기세로 강성대국건설에 거연히 일떠섰다.

자력갱생을 만능의 무기로 하여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그 어떤 기적도 능란하게 창조해 나가시는 희세의 위인 **김정일**, 그이를 ≪만능의 보검을 틀어쥐신 분≫이시라고 하는데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신문은 ≪빈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중간 제목을 달고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세계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상하게 무서워 벌벌 떠는 세력이 있다.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바로 그러하다. 그들은 이 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라고 떠들었는가 하면 그것이 그 누구에 대한 ≪위협≫이라고 소동을 피웠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을 적대시하는 그들에게는 위성이 미싸일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미친개 눈에는 몽둥이밖에 안 보인다≫는 조선속담 그대로이다.

미국, 일본, 남조선의 사실왜곡에는 저들의 정책실패에 대한 개탄도 깔려있다. 수십 년 동안이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총동원하여 제재와 봉쇄, 고립, 압살 정책을 써왔는데 약화되기는커녕 더욱 강성해진 조선, 우주강국으로까지 우뚝 솟은 그 현실을 인정하기가 그들에게는 몹시 고통스러운 것이다.

조선은 자기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대한 공식보도를 날림과 함께 이 우주개발기술이 군사적 목적에 돌려지는가 돌려지지 않는가는 전적으로 적대 세력들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고 천명하였다.

신문은 미국이 전쟁열을 고취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킨 사실을 폭로하고 우리 인민이 폭탄선언으로 그에 대답한데 대하여 썼다.

신문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명백한 것은 만일 제2의 조선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조선반도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국부전쟁≫에 집착된 ≪5027작전계획≫따위를 들고 조선을 위협해 보려는 미국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아마 이 계획의 작성자들은 미국이 생겨난 이래 수많은 대소전쟁을 치르어 오면서 자기 땅에 폭탄 한 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을 타고난 천명으로 여기며 그것이 혹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모양이다.

지난 50년대의 전쟁시기 미국의 폭격으로 자기 조국의 도시와 마을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이 미군의 출격, 병참, 보급기지로 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응당한 징벌을 가하지 못한 그 원한과 복수심을 세대를 이어가며 가슴속에 품어온 조선인민이 이제 새 전쟁이 터지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난날의 분풀이까지 마음껏 해대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능력이 충분한 오늘 복수의 권리를 행사하는가 보유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조선의 의지는 조선인민군 총 참모부 대변인성명에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이 의지가 비낀 조선의 선언에 미국과 남조선, 일본은 한 마디 대꾸도 변변히 못하고 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미국은 조선에 자중할 것을 애원하고 남조선과 일본은 조선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라고 서로 충고하였다 한다.

얼마나 극적인 현상인가. 이라크,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미싸일을 발사하면서 제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톡톡히 길들인다던 ≪유일초대국≫이 조선의 한마디 큰소리에 기가 죽어 숨소리조차 조심하고 있다.

힘이 세면 목소리가 큰 법이다.

조선에는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무엇이나 마음먹은 대로 해내는 만능의 보검을 틀어쥐신 희세의 위인이 계신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없다.≫

조선의 이 경고를 누구나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빈말을 하지 않으신다.

우주공간에 혜성처럼 나타나 행성을 굽어보는 조선의 인공지구위성은 바로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다.

민족의 통일념원을 반영한 시대의 걸작
-노래 ≪우리는 하나≫(2)

≪로동신문≫ 4월 28일

력사에 빛날 통일의 노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명곡은 사람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며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의의 있는 사변들과 함께 력사에 길이 남게 된다.≫**

조국통일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는 우리 민족에게는 최대의 숙원인 통일의 념원을 반영한 노래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노래 ≪우리는 하나≫와 같이 민족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그토록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노래, 전 민족적인 통일가요로 높이 울려 퍼지는 시대의 명곡은 일찌기 없었다.

조국통일을 언제까지나 념원으로만 안고 살수 없는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과 의지가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률이 되여 울려 퍼지는 노래 ≪우리는 하나≫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으며 시대의 통일가요로 널리 불리워 지고 있다.

이번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서 북과 남, 해외의 예술인들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 같은 통일열망을 담아 노래 ≪우리는 하나≫를 소리높이 불렀다. 일본에 사는 남조선가수 김련자는 조국통일에 대한 간절한 념원을 안고 이 노래를 특색 있게 불러 동포애의 정을 뜨겁게 해주었으며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우리 민족의 통일기운이 전례없이 높아 지고 있는 시기에 나온 노래 ≪우리는 하나≫는 통일열기로 뜨거운 민족의 가슴마다에 더 큰 활력을 부어 주고 있다.

노래가 없는 혁명의 승리를 생각할수 없듯이 전 민족이 함께 부르는 통일의 노래없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없다.

오늘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2000년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할 각오를 가지고 통일운동에 힘차게 떨쳐 나서고 있다. 통일의 노래가 있어 조국통일은 먼 장래가 아니라 가까운 앞날에 있다.

노래는 시대의 목소리라는 말이 있다.

노래 ≪우리는 하나≫는 통일열기로 충만된 오늘의 시대의 벅찬 숨결과 7천만 우리 겨레의 통일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이라는 굳은 확신에 넘쳐 있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 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으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 민족의 통일의지를 그대로 담은 6.15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전 민족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의 밝은 희망을 안겨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심혈이 어려 있는 조국통일 **3** 대헌장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조국통일의 대강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있기에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락관적이며 승리는 확정적이다.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고 대지의 꽃들이 만발하듯이 민족도 자기 운명의 진정한 어버이를 모셔야 참된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반만년 유구한 세월 우리 민족이 체험한 뼈 저린 체험이며 력사의 달리 될수 없는 법칙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노래 ≪우리는 하나≫가 세상에 나온것을 그토록 하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것이며 이 노래와 더불어 통일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 갈 불 타는 신념에 넘쳐 있는것이다.

그렇다.

노래 ≪우리는 하나≫, 이것은 새 세기에 통일조국을 반드시 일떠 세우고야 말 전체 조선민족의 확고한 신념의 분출이다.

통일조국의 장엄한 서곡인양 삼천리강산을 진감하며 더욱 높이 울려 퍼지는 노래 ≪우리는 하나≫!

전체 조선민족이 2000년대의 통일가요인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나아갈 때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 놓인 장애와 난관은 제거되고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것이다. 먼 후날 후대들은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추억할것이다.

노래 ≪우리는 하나≫는 조선민족의 통일가요로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그날은 오리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지만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7천만 겨레의 통일열망을 그대로 담은

찬란한 태양의 빛발아래 마련된 조국통일 3 대헌장과 같은 통일의 대강이 있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였기에 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누리에 밝아 오고야 말것이다. 노래 ≪우리는 하나≫는 그것을 확신케 하고 있다.

노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이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이어 오며 찬란한 문화를 수 놓아 온 조선민족의 웨침이며 신념이다.

우리는 하나,

이것은 예로부터 하나의 피줄기를 잇고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 온 우리 민족의 달리는 될수 없는 모습이다.

어찌하여 우리 민족은 반세기이상 그렇게도 뼈 아픈 분단의 고통속에 살아 오면서도 통일에 대하여 그토록 락관하는것이며 달리는 될수 없는 하나의 민족임을 소리높이 웨치는것인가.

민족의 의지와 열망은 마음의 기둥에 그 뿌리를 둔다.

노래에도 있듯이 찬란한 태양이 삼천리를 비치여 통일의 아침은 누리에 찬연히 밝아 오고 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은 통일조국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태양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돌이켜 보면 분단된 조국을 두고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 하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에게 주실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라고 하시며 어느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신 우리 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그 심혈을 말해주는 감동 깊은 이야기가 있다.

광복된 조국을 그려 보시며 등잔심지 돋구어 가시던 백두밀영의 그 밤처럼 우리 수령님께서는 어느 해 그날에도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다.

이젠 밤이 퍽 깊었다고 간절히 아뢰이는 일군들에게 수령님께서는 통일이 되면 잠을 편히 자겠는지라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남반부인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백두산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하시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깡그리 바치신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위업이였던 조국통일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여 바야흐로 현실로 도래하고 있다.

찬란한 태양의 빛발아래 마련된 조국통일 **3** 대헌장과 같은 통일의 대강이 있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였기에 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누리에 밝아 오고야 말것이다.

노래 ≪우리는 하나≫는 그것을 확신케 하고 있다.

환희에 넘쳐, 열정에 넘쳐 평양시예술선전대에서

선군시대에 태여 난 새 세기 통일의 노래 ≪우리는 하나≫,

노래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틀어 잡으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얼마전 평양시예술선전대를 찾았던 우리는 시대와 인민의 이러한 격동된 심정을 그대로 느낄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위대한 투쟁, 위대한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는 노래 ≪우리는 하나≫의 선률이 힘차게 울려 나오는 창작실에 들어 섰다, 때마침 창작실에서는 노래 ≪우리는 하나≫의 감상모임이 한창이였다. 노래의 심오한 사상을 새겨 가며 구절구절 따라 외우는 선전대원들, 새 명곡의 철학성과 민족성, 음악적특성에 대하여 열기 띤 토론을 벌리며 노래를 훌륭히 선전보급하기 위한 구상을 무르익히는 창작가들.

모두 명곡의 세계에 심취되여 있었다. 우리와 만난 선전대 대장 박기종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참 좋은 노래입니다. 가사의 뜻도 심오하고 선률도 민족의 통일열망을 담아 오늘의 시대적감정에 맞게 락관적으로, 누구나 다 부르기 쉽게 되여 있습니다.

더구나 노래 전반에 흘러 넘치고 있는 하나에 하나를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된다는 심오한 통일철학사상과 조선은 둘로 갈라져서는 못산다는 력사의 진리, 통일에 대한 신심과 환희의 정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통일된 조국의 날을 눈앞에 그려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작품창작에 들어 가기전에 이렇게 노래감상을 먼저 하면서 노래의 심오한 사상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그대로 새로운 가요창작에 구현하기 위한 전투도 벌리는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정녕 이것은 이곳 일군들과 선전대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 그리고 온 조선민족의 한결 같은 심정이고 념원이였던것이다.

감상모임에 이어 들끓는 현실속에 노래의 사상을 널리 보급선전하기 위한 협의회가 벌어 졌고 구체적인 작전과 대책들이 세워졌다.

그들은 이미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나가서 이 노래에 대한 예술선전활동을 벌렸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우리의 귀전에는 노래 ≪우리는 하나≫의 우렁찬 메아리와 함께 삼천리강산에 터져 오를 통일의 환호성이 금시 들려 오는듯 싶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제19회
임종수 선생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평등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우리는 정치생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표현의 하나인 인민적인 선거제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평등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빛내여 나가시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꼭 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정치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생활에서 자기들의 자주적 요구를 원만히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벌써 해방 직후에 여성들로 남자들과 꼭 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였습니다. 여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사회에 나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아니라 간부로써 일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여성은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들이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야 사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사회정치활동에 참가해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게 하자면 남녀불평등을 없애야 합니다.

사적소유가 발생하고 착취사회가 생기면서 형성된 남녀불평등 속에서 여성들은 착취사회가 존속된 수천년 동안 정말 가혹한 천대와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착취사회에서 착취계급들은 남녀불평등을 사회제도로 고착시키고 그것을 반동사상으로 합리화 하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동방의 봉건사회의 사상적 지주였던 유교에서는 남존여비사상을 고취하면서 여성을 물건과 같이 남성의 소유물로 만들고 여성들에게 갖은 천대에 멸시를 가하는 것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녀불평등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다수의 여성들은 상품처럼 사고 팔리고 있으며 사회의 막바지에서 온갖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사회적 무권리를 강요하며 사람에 의한 사람의 압박과 착취관계를 낳는 착취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평등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착취계급들은 남녀불평등이 그 어떤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불평등으로써 여성들이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어야 한다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착취사회에서 남자들의 성노리개로 남편의 시종만을 드는 부엌떼기로서 남자들의 요구에 무조건 순종해야 할 의무만이 있는 것은 그 **의 그 어떤 자연적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에게 사회적인 무권리를 강요하며 사람에 의한 사람의 압박과 착취관계를 낳는 착취사회의 제도자체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사회적 불평등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면 남녀불평등을 낳는 착취제도 자체를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착취제도 자체를 없앤다고 해서 여성의 정치적 평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불평등은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의 조건에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없어지지만 남녀불평등이 없어졌다고 해서 여성들의 완전한 해방이 이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다음에도 사회에는 경제***적으로써 뒤떨어지는 생산력, 사상 문화적 낙후성, 가정일의 무거운 무담, 어렵고 힘든 노동과 같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유물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이 남아있는 것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사회활동에서 노는 역할에서 아직 남자들보다 뒤떨어지게 됩니다.

여성문제의 종국적 해결은 사회주의 제도 수립 후에 계속되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해결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여성들은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여 낡은 구속에서 해방할 뿐아니라 나라의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그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과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성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실지로 평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동등한 역할을 놀게 됩니다. 이처럼 착취사회에 더불어 수천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온 남녀불평등을 없애고 여성들을 온갖 사회적 구속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그들을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내세우는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렵고도 중요한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평등의 관한 문제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빛나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녀평등권의 문제는 이미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통해 여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렵고도 중요한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평등의 관한 문제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빛나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녀평등권의 문제는 이미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통해 여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평등을 실현하는데서 남녀평등권법령은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날부터 여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그에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우리 혁명의 성격과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본질 그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서 남녀의 차별없는 인민적 평등을 보장하며 부모의 사회적 대우를 높이고 여자의 인격을 존중할 것을 여성해방의 과업으로 천명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복 후 여성운동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보시고 여성들은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세기적 숙망을 풀어주시기 위해 주체35,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셨습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모든 9개의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요내용에는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을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주권기관 선거에서 남자와 동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동등한 노동권리, 동일한 생활비와 사회적 보호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 등이 밝혀져있습니다.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는 우리 여성들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창발적인 ***을 열어놓았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남녀평등권법령의 발포, 그것은 대대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빼앗기고 역사밖에서 버림받는 우리 여성들을 참된 존엄과 행복의 상상봉에 올려세운 역사적 사변이였고 일대 경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된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어 국가사업과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하고 있으며 당 국가경제일군들로 영웅, 노력혁신자로 재능있는 과학자, 교육자, 의사, 작가, 예술인, 체육인으로 자라나 혁명의 꽃, 나라의 꽃, 생활의 꽃으로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남자들과 꼭 같은 권리를 가지고 혁명의 꽃, 나라의 꽃, 생활의 꽃으로 피어나 값 높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안영헤, 조옥희, 리수독, 신포항 천리마 시대의 리순자 길학실 그리고 오늘의 정성옥 박옥희 현연나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이 조국이 사랑하고 인민이 사랑하는 혁명의 꽃, 나라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남자들과 꼭 같은 사회적 평등권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참가하며 나라의 꽃, 생활의 꽃으로 활짝 피어난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현명한 영도의 결과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에서 여성들이 노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그들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워주시고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성들은 가정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이라고 하시면서 ≪여성은 꽃이라네≫ 라는 노래도 짓도록 하시고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존중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셨으며 그들을 조직생활과 실천투쟁을 통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여성혁명가들로 키워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또한 여성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빨리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바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르는 곳 마다에는 평양산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사원과 탁아소, 유치원 병원과 진료소, 밥공장, 국수공장들이 일떠서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훌륭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여성들의 은인이시고 친어버이이십니다. 오늘 우리 여성들은 혁명의 꽃, 나라의 꽃, 생활의 꽃으로 일터마다에서 위훈의 창조자로 자랑떨치고 가정과 마을에서는 알뜰한 주부로 사랑 받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 가시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경제생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조국통일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

민족의 존엄은 민족의 자주성에 의해 보장되고 빛나게 된다는 걸 이북의 현실을 통해 잘 알 수 있죠. 또한 자주성이 없는 민족은 식민지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걸 ≪한국≫의 현실을 통해 잘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의해 자주성을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의 간섭을 받아야 하며 미국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이남땅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첫 순서로 ≪조국통일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 이런 제목으로 오일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류역사는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민중의 투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식민지체제가 세계적 범위에서 붕괴된 건 자주성을 위하여 싸운 인류의 귀중한 전취물이죠. 우리가 그처럼 바라고 성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조국통일도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인 겁니다.

그러면 자주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으로써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성질이 바로 자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주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어떤 예속과 억압도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자기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봉사하도록 만들어나가는 겁니다. 이리하여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합니다.

자주성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생명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회적 인간으로써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주성은 또한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그 나라, 그 민족을 이루고 있는 민중의 자주성의 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고수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며 민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의 분열로 말미암아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반세기가 지나도록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양단되고 민족이 갈라지게 되었죠. 민족의 분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온갖 불행과 재난을 겪어왔으며 우리의 지향대로 통일적인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어요.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자주권으로 대표되며 민족의 자주권은 민족의 존재와 발전의 근본초석입니다. 민족이 자주권을 잃게 되면 노예의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이건 40여년간의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피눈물나는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에 사무치게 새긴 귀중한 진리이죠.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이남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천년동안 한 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핏줄도 하나이고 문화도 하나이고 역사도 하나인 우리가 둘로 갈라져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민족적 불행과 재난을 면할 수 없으며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죠. 통일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확립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조국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인 겁니다.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 권리가 있어요. 민족의 자주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입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자주권에 관한 문제인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자주권을 전국적 범위에서 확립할 수 있는 확고한 길이 놓여져 있는데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기로 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그겁니다. 남북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온 나라에 민족의 자주권이 확립되고 민족구성원인 우리 민중의 자주성이 옹호되고 고수되는 겁니다.

7천만 온 겨레는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고수하기 위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조국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5일~26일

≪F-15K≫전투기를 강매하려는 미국의 속셈

지금 미국은 ≪한국≫에 대한 ≪F-15K≫전투기강매를 어떻게 하나 실현시키기 위해 온갖 위협과 권모술수를 다하고 있는데요. 그래 이번에는 미국이 ≪한국≫에 ≪F-15K≫전투기를 기를 쓰고 강매하려는 저의가 무언지 알아보기로 하죠. ≪≪F-15K≫전투기를 강매하려는 미국의 속셈≫, 윤정원씨 모시고 이철씨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철 : 안녕하세요.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이　철 : 최근 각계 국민들속에서 미국의 ≪F-15K≫전투기강매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이 날을 따라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F-15K≫전투기를 강매하려는 미국의 속셈, 이런 화제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윤정원 :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F-15K≫전투기 수십대를 ≪한국≫에 강매하기 위해서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방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 압력을 가해 ≪F-15K≫기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하는 2단계평가결과를 발표하도록 했어요. 이와 관련해 이 땅에서는 각계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철 : 오늘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민족적 화해분위기이지 우리 민족을 해칠 살인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F-15K≫전투기를 이 땅에 들이밀려 하고 있죠. 미국이 우리 민중의 일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백해무익한 ≪F-15K≫전투기를 ≪한국≫에 강매하려는데는 음흉한 속셈이 있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미국이 ≪한국≫에 ≪F-15K≫전투기 수십대를 강매하려고 하는 건 한반도에서 새 전쟁을 일으켜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핵참화를 덮씌우려는데 있죠. 미국의 부시호전집단이 ≪악의 축≫론을 떠들며 이북을 ≪반테러전≫의 대상으로 지목을 하고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북에 대한 핵공격기도를 드러낸 때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강매하려고 하는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데로부터 이미 전에 1천여개의 핵무기를 이 땅에 반입, 배비한데 이어 지금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 전투기를 끌어들이려고 광분하고 있죠. 미국의 이같은 전투기도입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는 핵전쟁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철 : 미국이 ≪F-15K≫전투기를 ≪한국≫에 강매하려는데는 이뿐만이 아니라 경영위기에 처한 미국 군수독점체들을 회생시키자는데도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미국이 ≪한국≫에 강매하려고 하는 ≪F-15K≫전투기 1한대값이 1억달러가 넘습니다. 이렇게 비싼 전투기를 강매해 번 막대한 돈이 누구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들어가겠는가 하는건 불보듯 뻔하잖아요. 사실 이번에 ≪F-15K≫생산기업체는 폐쇄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때문에 미국은 이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국방부에 압력을 가해 ≪F-15K≫전투기를 선정하도록 했던 겁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전 한미연합군 사령관이었던 토마스 슈워츠는 ≪F-15K≫전투기판매와 관련해 국방부에 압력을 가했고 미국 보잉회사 부회장과 미국 국회의원들이 공군참모총장 등 ≪한국≫군부내의 장성들을 잇따라 만나서 강매압력을 가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F-15K≫생산공장이 있는 미저리주 출신의 미상원 의원 크리스토퍼 본드는 ≪한국≫이 문제의 전투기를 사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을 했죠. 결국 국방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전투기구입을 승인을 했고 ≪F-15K≫생산기업체는 전투기판매결정으로 기업폐쇄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　철 :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실현을 위해 사용할 대량살상무기들을 이 땅에 끌어들이면서도 그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지우고 무기장사로 막대한 돈까지 벌어 제 주머니에 넣는 미국의 행위는 철면피하기 그지없습니다. 미국의 전투기강매와 무력증강책동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상태를 격화시키고 아시아지역들의 세론을 긴장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각계 국민들은 이 땅에 ≪F-15K≫전투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한반도 핵전쟁의 온상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재난을 들씌울 미국의 살인무기강매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누구나 없이 나서야 하겠죠.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5일~26일

반미투쟁으로 미국의 죄악 청산하자

정의감이 강하고 불의를 용서치 않는 청년학생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대가 되어 대오의 앞장에서서 민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4.19민중봉기, 5.18광주민중항쟁 등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은 투쟁의 기폭제가 되고 주력군이 됐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지금 대북강경압살책동을 벌이면서 조국통일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는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투쟁에서도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최근 세차게 벌어지고 있는 청년학생들의 반미투쟁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반미투쟁으로 미국의 죄악 청산하자≫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층 민중은 각지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반미투쟁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 인천과 의정부 등 각지에서 청년학생들과 민중들이 시위와 집회를 벌이고 성명, 호소문발표를 통해 미국의 죄악을 단죄, 규탄하는 등 각종 형태의 반미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이 반미실천단 등을 결성하고 반미시위를 벌이면서 투쟁의 선봉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또 주목되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은 산업대학교 건설대학 앞에서 6.15공동선언이행과 미국의 대북강경철회, 핵전쟁도발책동분쇄를 위한 반미실천단 결성식을 가졌습니다.

한편 남총련, 서총련, 경기남부총련 등에서도 반미실천단을 결성하고 미국과의 싸움은 정당하기에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하고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미국은 오히려 한반도에 냉각을 가져오고 전쟁위협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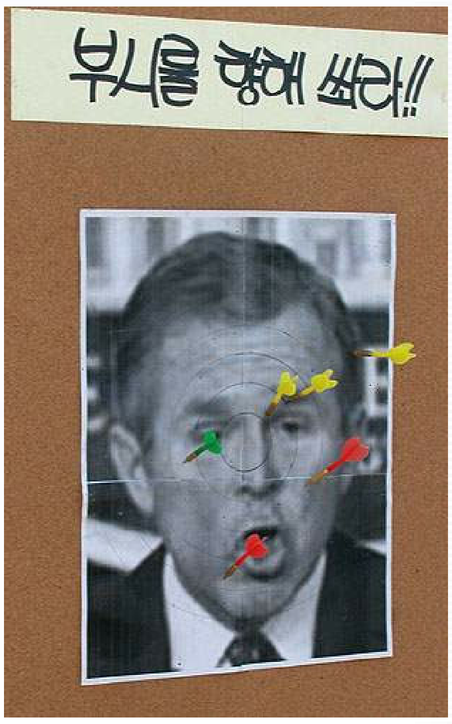
결성식에서는 부시행정부의 ≪악의 축≫발언과 ≪F-15K≫전투기강매행위는 조국통일의 분위기에 위험을 조성하고 있다고 단죄하면서 청년학생들의 반미투쟁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어 미국반대, 이회창반대의 내용으로 된 반미실천단 결의문이 낭독되고 이회창반대선전전과 ≪F-15K≫전투기도입반대선전전을 벌이면서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런가하면 서울에서 수천명의 대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미군의 강점과 미국의 ≪F-15K≫전투기강매책동을 반대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참가자들은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의 폭언을 규탄하고 부시자신이 ≪악의 축≫이라고 지탄하면서 미국의 죄악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밖에도 한민족네티즌협의회, ≪한국기독청년연맹≫, 천도교청년회, ≪한국청년연합회≫, 한청련, 범청학련 남측본부, 전대협동우회, 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비롯한 18개 단체들이 망라된 반미축전준비위원회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서는 우리의 젊은층은 조국의 참담한 현실앞에서 더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반세기여동안 미국에 억눌려온 민족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사상과 정견, 신앙과 이념, 지역과 나이의 차이를 넘어 굳게 단합할 것이며 미국에 의존하는 사회기풍을 혁신할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성명서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이 중단될 때까지 미국상품을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범국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미국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과 어깨 겯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의 이같은 반미투쟁은 미국의 지배를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성스러운 애국투쟁이며 미국의 죄악을 단죄규탄하고 민족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의로운 투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0여년간에 걸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통치사는 미국이야말로 벗이 아니라 침략자, 살인자이고 원조자가 아니라 약탈자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을 불법강점한 미국은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장본인으로써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가져다주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교란시키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극력 반대해 왔습니다.

부시행정부출범이후 미국은 대한반도정책에 따라 대북적대시정책, 반북고립압살책동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전쟁접경에로 몰아갔습니다.

부시의 ≪악의 축≫발언,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에 의한 북에 대한 핵공격계획, 북침을 목적한 무모한 전쟁연습소동등은 그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에 의해 6.15공동선언이행이 차단되고 결국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 난관이 가로놓이게 됐습니다.

참으로 미국이 우리 민족, 민중에게 저지른 죄악은 크며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만고대죄입니다. 미국의 식민지통치가 계속되고 침략과 약탈, 전쟁책동이 지속되는 한 우리 민중에게 엄청난 불행과 고통이 가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현실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모든 악의 근원인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미국이 저지른 침략의 죄악, 약탈과 살인의 죄악, 반통일 죄악을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이 투쟁에서 마땅히 청년학생들이 앞장에 서야 하며 여기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이 합류해서 미국의 죄악을 청산하는 투쟁을 거족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땅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전반핵투쟁을 비롯해서 미군기지되찾기운동과 ≪F-15K≫전투기강매책동을 반대하는 투쟁 등 각종 형태의 반미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나가는 한편 이 모든 투쟁을 하나의 반미공동전선에 결속시켜 범국민적 운동으로 조직전개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쟁의 승리는 민중의 단결된 힘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층 민중과 반미운동단체는 물론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미반전투쟁에서 서로 연대하고 연합을 이루어 공동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핵전쟁의 먹구름을 이 땅위에 몰아오려는 미국의 북침책동, 핵전쟁책동을 결사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미반전반핵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나가는 것은 매우 긴절한 과제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다 미국의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분기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있고서야 우리 자신이 있고 민족이 살지 못하면 자주통일도 없습니다.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누구나 다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반미반전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이 땅의 전국민은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내고 저주로운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반미항전을 더욱 거족적으로 분출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5일~26일

≪최종길 교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졌다≫

의문사진상위, ≪타살 가능성 높다≫

지난 73년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 당한 고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졌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개월간 조사한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최 교수가 간첩 사실을 자백했다는 당시 중정 발표가 거짓≫임을 지적하면서 ≪최 교수는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불법 수사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최 교수의 죽음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특히 최 교수의 경우 사망 이후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유신반대 등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근거가 됐던 점을 감안해 보면 최 교수의 저항은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자유권리를 신장시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최 교수가 자살했다는 중정 발표와 달리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최 교수가 타살됐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 당시 공작과장 안흥용 및 수사단장 장송록의 진술을 들었다.

장송록씨는 ≪최 교수는 당시 심한 고문을 당한 상태에서 7층 화장실뿐만 아니라 그 어디도 제 발로 걸어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더구나 화장실 창문을 타고 넘어 자살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이미 고문으로 죽었거나 가사 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 옮겨진 것이 틀림없다≫고 진술했다.

안흥용씨는 ≪당시 김종한 계장이 취침하고 있는 조사실로 들어와 7층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손짓으로 미는 흉내를 내면서 ≪여기서 최종길을 밀어버렸어≫라고 하여 그 즉시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와 비상출구로부터 약 2미터 떨어져 있는 시체를 확인했다≫면서 ≪타살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일본의 카미야마 시게타로 박사의 법의학 소견도 타살 증거로 제시했다. 카미야마 박사는 최 교수의 부검사진을 보고 ≪최 교수의 사망을 추락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를 바닥에 던지거나 발바닥에 망치 등으로 외력을 가해 생긴 사후 손상을 볼 수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 피의자 신문조서, 현장검증조서, 수사보고서 등 송치서류의 대부분이 사후에 조작된 점 ▲ 고문사실의 은폐 ▲ 사체의 상태 및 위치, 자세, 착의상태 등 현장을 조작한 점 ▲ 비정상적인 부검 절차 및 중정에서 부검 감정서 원부를 빼내려 기도한 점 등도 타살의 간접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진상규명위는 ≪그러나 ≪직접 타살≫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관들의 고문 · 협박이 최 교수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 교수는 위법한 공권력의 직 · 간접 행사로 숨졌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지난 25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28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최 교수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최 교수의 고문 및 사망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당시 중정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와 관련, 진상규명위는 이들의 범죄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홍기혜 기자
2002/05/27 프레시안

최종길교수 ≪공권력 사망≫ 결정 의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7일 최종길 교수사건을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죽음≫으로 결정한 것은 옛 권위주의 정권의 부도덕성과 폭력성을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결정문에서 ≪사건이 일어난 1973년은 유신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거세게 전개됐던 시기≫라며 ≪당시 체제 수호를 담당하고 있던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위기의식을 조성해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최 교수를 간첩단의 일원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민주화운동과 공권력에 의한 타살 부분을 더욱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규명위는 ≪권위주의 정부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조작 · 기도된 사건 수사에서 자백을 거부한 최 교수의 행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죽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문제가 여전히 진상규명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최 교수를 담당한 조사관들이 형법상 가혹행위와 상해치사,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돼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배제의 필요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내기로 하는데 그쳤다. 또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박정희 대통령의 개입여부를 뚜렷이 밝히지 못해, 조사권을 갖지 못한 위원회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관련기관의 협조와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는 규명위원회의 한계때문에 조직적인 사실 은폐 등을 밝혀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공소시효 배제를 통해 당시 사건을 맡았던 이들에게 사면권을 주는 한 진실규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2002/05/27 인터넷 한겨레

진실규명 기다리는 ≪동의대≫

13년 전 5월 4일치 조간신문들은 전날 동의대 진압과정에서 7명의 경찰이 사망한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인질경찰을 분신시켰다≫, ≪창틀에 매달린 경찰 두 명을 학생들이 손등을 밟아 추락≫하게 했다는 등 끔찍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지난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동의대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그러자 그때의 언론들은 ≪≪민주화≫로 바뀐 경찰살상시위≫, ≪시너 뿌리고 불질렀는데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 운동?≫ 등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마구 공격해댔다.

그러다 보니 경찰들의 격앙된 항의도 이어진다. 며칠 전에는 서울 기동대의 한 중대원들이 ≪근조≫ 리본을 집단적으로 패용하기까지 했다. 동의대 사건 이후 경찰들은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한 진압에 자신들을 내몰아 동료들을 죽게 한 경찰 지도부에 항의하여 집단행동을 하기까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1989년 새벽에 발생한 동의대 사건의 시작은 학교의 부정입시 문제로부터였다. 사건 직전에는 인근 파출소장의 총탄 난사도 있었고, 5월2일 시위에서는 학생 9명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사복체포조 5명이 학생들에게 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면서 경찰 쪽과 인질문제로 협상을 벌였고, 5월3일 오후까지 무조건 경찰을 풀어주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 5시를 넘겨 경찰이 학교 도서관에 진입했고, 경찰을 피해 옥상으로 학생들이 대피한 상황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물론 학생들이 연행되고, 이중 46명에게 징역 2년부터 무기징역까지의 형량이 선고되었다.

1989년 노태우 정권은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었다. ≪중간평가 국민투표≫ 요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태우 정권은 그해 초반부터 노동자들의 파업, 농민들의 투쟁을 무참하게 진압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해갔다. 그리고 3월 고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삼아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였고, 이후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여갔다. 그런 중에 부산 지역에서 부산교대 이경현씨가 경찰 시위대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동의대 사건이 벌어지던 날 광주 청옥동 저수지에서는 조선대 수배 학생 이철규씨가 변사체로 떠올랐던 것이다. 동의대 사건은 공안탄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아 화염병처벌법이 그해 6월 제정된다.

당시 일선 경찰의 간부진도 반대한 강경진압은 그날 새벽 감행되었고, 평소와는 달리 선무방송이나 경고도 없이, 바닥에 매트리스도 깔아놓지 않은 채 도서관에 진입한다. 문제의 7층에 경찰이 진입할 때 학생들은 이미 옥상에 올라간 상태였으며, 경찰에게 던져진 화염병과 또 하나의 작은 불꽃은 곧 꺼졌다. 경찰은 소화기 소화액이 모두 바닥났는데도 이를 보충하지 않은 채 그대로 7층에 진입했다. 그곳에서 화염병이나 석유, 시너 등으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엄청난 열기를 지닌 폭발이 있었고, 경찰들이 창문에 매달린 채 10분이나 살려줄 것을 호소하였지만, 매트리스도 없는 바닥에 그대로 떨어져 사망하기까지 했다. 그 문제의 화재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채 46명의 학생들에게는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되었다.

따라서,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그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찾는 일이다. 경찰이 부정한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어 부당한 진압에 나서지 않는 것,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에 동원되지 않는 것, 결국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것이 때늦었지만, 오늘 동의대 사건을 되돌아보며 가져야 할 뼈아픈 성찰이지 않을까.

박래군 인권운동가
2002/05/27 인터넷 한겨레

민주노동당 김석준 부산시장후보 상승세

시민후보추대와 방송토론 참여가 호재작용

6.13지방선거의 주요 관심지역인 부산지역에서 양당구도의 틈새를 비집고 민주노동당의 김석준 후보(부산대교수)가 본격적인 세를 확대하며 약진의 발판을 만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석준 후보는 우선 지난 22일 민주노총, 어민총연합, 농민회, 부산연합등의 지지를 기본바탕으로 정의헌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윤희동신부 등 부산지역 시민 사회단체와 종교 학계 법조계등 각계를 망라한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시민후보 추대위원회≫의 공식 시민후보 추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의 회원들과 일반시민 참여자를 포괄하는 범시민적 선거운동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24일 발족하는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에 박순보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장을 비롯 박건일 전국소형어민총연합 회장, 박상봉 부산농민회 회장, 이성우 부산연합 공동의장, 정의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손현숙 교수 등이 추가로 영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후보는 ≪시민후보로 추대됨에 따라 시민들과 더욱 친숙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며 시민후보로서의 도덕성과 개혁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여망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제 부산에서 정치의 희망, 지방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개혁세력의 분열로 인해 오히려 한나라당의 당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그들이 진정한 개혁세력이라면 그들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들은 진정한 노동자, 서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며 안상영과 한이헌의 차이, 김석준과 한이헌의 차이 중 어느 것이 큰가≫를 비교 ≪두 명의 보수 구시대적 관료출신에 유일한 개혁과 진보의 후보가 맞서는 것 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석준 후보는 이미 100대 공약을 발표, 정책중심의 선거를 분명히 선언한 바 있다. 주요 공약으로 명지주거단지문제 등의 해법을 제시하며 환경과 개발의 조화, 노동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어린이 보육시설의 확충, 복지예산 증액,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직사회개혁 등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김석준 후보측은 ≪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릴레이 토론에서의 활약과 시민후보추대 등의 호재로 현재 지지도가 두 자리수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의 파괴력을 자신하고 있다.

특히, 23일 진행된 PSB 부산방송 시장후보 토론회에 한나라당 안상영, 민주당 한이헌 후보와 함께 3당후보로 참석한 것이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양당 후보와 당당히 토론에 참여함으로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언론으로부터 소외됨으로서 가진 군소 후보의 이미지를 벗게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수차례 TV 시사프로에서 사회를 본 경험과 사회학 교수의 식견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차분히 설득력있게 토론에 참가하였다.

≪도로율이 몇 퍼센트인가≫, ≪도로율 1% 올리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라는 기습 질문에도 차분히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더불어 대안까지 제시하여 양 후보의 비방전 속에서 돋보였으며, 특히 한이헌 후보가 김석준 후보를 소외시키면서 안상영 후보와 양자 토론으로 몰고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는 평이다.

김석준 후보측은 ≪이번 토론을 토대로 명실상부한 3자 구도의 선거전이 시작되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진행된 타 방송사 토론에서도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디어 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22일 부산시지부 후원의 밤을 통해 후원금과 더불어 전당원들이 1년 동안 가정과 사무실에서 모금한 진보돼지(저금통)를 개봉하여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으며, 24일 시지부 선대본을 공식 출범시키며 선거운동체계로 본격 전환한다.

민주노동당은 부산지역에 김후보 외에 강호열 시의원 후보(북구 제1선거구)등 모두 12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같은 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1순위가 유력한 박주미(카톨릭노동상담소) 후보를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김권태 기자
2002/05/24 오마이뉴스

≪조건없는 월드컵 무파업강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

노동자 3만명, 노동탄압중단 ·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 촉구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26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3만 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노동탄압 중단과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백순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구속수배가압류 등 가혹한 노동탄압이 진행되는 노동자들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월드컵 무파업≫만을 강요하고있다≫며 ≪5월말까지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달 말 민주노총은 노동탄압분쇄투쟁 등 직접행동을 취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교육시장화저지와 교육공공성강화를 주장한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과 발전산업노조 등 현장탄압과 노동탄압분쇄를 주장한 김위홍공공연맹부위원장, 그리고 전재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직무대행이 투쟁연설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공동연대투쟁을 할 것≫을 호소했다.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탄압 중단과 구속수배노동자 석방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도입 ▲공무원 노동3권보장 ▲기간산업매각중단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며 ≪이상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임금단체협상투쟁 사업장, 노동운동탄압사업장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투쟁의 파고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대중정권의 부정부패, 인권탄압, 노동자탄압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월드컵기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과 공무원노조 불허 등 기본권 제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여론화 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6월 하순에 전세계 주요도시에 단병호 위원장 석방과 공무원 노조인정을 촉구하는 국제연대행동에 돌입하기로 국제자유노련(ICFTU) · 국제금속노련(IMF) · 국제공공노련(PSI) 등과 최근 합의를 끝냈으며 실질 준비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1시 대학로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 전교조) 1만 여명이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가졌으며 대회 후 민주노총집회에 합류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교조는 참교육을 실현한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졌으며 참교육특별상 단체부분으로 ≪박원국 이사장의 전횡과 사학비리를 학내 구성원들의 힘으로 막아냈다≫는 덕성여대 교수협의회가 수상했다.

교사대회 이후 공공연맹(공무원노조, 위원장 차봉천) 결의대회가 이어졌으며 차봉천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는 단 1%밖에 되지 않는 고위공무원들의 전횡때문≫이라며 ≪공무원노조가 출범해 일류국가를 이룰것이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국노총과 현정부가 계속해서 공무원노조결성을 방해한다면 이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이날 도심집회는 거리행진 없이 끝을 맺었다.

백영순 기자
2002/05/27 유뉴스

조 · 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2)

(1) 조 · 미 관계의 본질과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
(2)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발휘한 북(조선)의 돌파력
(3) 조 · 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4) 분단체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민족통일기구 수립이
가지는 의의
(5) 민족민주전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3) 조 · 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2)

북(조선)은 미국에 대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한다는 것을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가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한(조선)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지배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북(조선)에게 있어서 조 · 미 국교수립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한(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가장 위력한 정치적 수단이다. 북(조선)이 조 · 미 정치협상을 통하여 국교수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까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 · 미 국교수립 과정은 사회주의혁명역량을 제거하려는 제국주의세력의 적대 · 말살정책이 파탄되는 과정이다.

둘째, 조 · 미 국교수립 과정은 제국주의세력이 동북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하여 전진배치한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친미예속세력은 조 · 미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평화공존체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그러한 추세에 따라 남북 관계도 국가 대 국가의 평화공존체제로 전환하자는 국가연합제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조 · 미 사이에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남북 사이에서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여 통일국가가 아니라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을 건설하여 ≪사이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가연합 방안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가 있다.

1) 조 · 미 관계의 변화과정은 국가 대 국가의 평화공존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에 대한 반제전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도 국가 대 국가의 평화공존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통일세력이 반통일세력과 맞서 싸우는 조국통일운동에서 승리하는 과정이다.

2) 유럽지역에서는 혈통과 언어를 달리하는 여러 국가들이 통합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국가연합을 건설하였으나, 한(조선)반도에서는 단일한 혈통과 언어를 가진 민족이 통일의 주체이므로 연방국가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4) 분단체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민족통일기구 수립이 가지는 의의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체제를 지탱해온 힘의 균형상태가 만일 깨어지지 않는다면 분단체제는 없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평양회담과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오늘의 현실은 분단체제를 지탱해온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힘과 분단체제를 제거하려는 힘 사이의 역량관계가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투쟁이 그 역량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이다. 그 투쟁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역량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도가 보인다. 지배 · 예속구도로 병합되어 있는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세력은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반통일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역량은 각기 분단체제를 제거하려는 통일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두 개의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다.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반통일세력과 그 체제를 제거하려는 통일세력 사이에서 형성된 역량관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제1측면 –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이 대결하는 측면

제2측면 –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이 대결하는 측면

제3측면 –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이 대결하는 측면

제4측면 –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이 대결하는 측면

이 대결구도의 네 측면에서 주되는 두 측면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이 대결하는 제1측면, 그리고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이 대결하는 제4측면이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친미예속세력보다 제국주의세력에 대해 공세를 더 집중해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까닭은 제국주의세력이 친미예속세력보다 더 강한 상대이므로 제국주의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면 친미예속세력도 쉽사리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이 대결하는 측면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까닭은, 제국주의세력이 민족민주전선역량을 직접 상대하려 하지 않고 언제나 친미예속세력을 앞에 내세워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세력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친미예속세력을 동원해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을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친미예속세력을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만일 민족민주전선역량이 비상히 강화되어 친미예속세력으로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고 되레 제압 당하게 되면, 제국주의세력은 직접 민족민주전선역량을 타파 · 소멸하려고 덤벼들 것이다. 그러나 민족민주전선은 아직 그러한 조건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한(조선)반도의 역량관계에서 볼 때, 어떠한 조건에서 분단체제가 제거되고 조국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까?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다면 분단체제가 제거되면서 조국은 통일될 것이다. 이것은 자명한 이치다. 우리가 더 따져 묻고자 하는 물음은, 지난 10년 동안의 정세는 이 자명한 이치에 얼마나 합치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의 정세동향을 역량관계의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제국주의세력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데,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세력을 제압할 만큼 압도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돋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10년 안에 분단체제를 제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관건은 민족민주전선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

2000년 6월 평양회담에서 채택한 6.15 공동선언은 앞으로 10년 안에 분단체제를 제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략을 제시한 역사적인 문서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조국통일의 실현방략을 제시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이 2000년 6월에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국면에 들어선 기세를 몰아 친미예속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제압하고 6.15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6.15 공동선언이 제시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실현방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는 방략이다. 이것은 조국통일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공통성을 실체화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두 방안의 공통성을 실체화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공통성을 실체화한다는 말은 조국통일과업을 담당 · 추진하는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북(조선)은 그 정치적 주체를 ≪민족통일기구≫라고 부른다. 북(조선)은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지 약 넉달 뒤인 2000년 10월 6일에 처음으로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공통성을 실체화하는 것이 곧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통일기구란 무엇인가? 민족통일기구는 통일국가의 지위와 권능을 아직 갖지 못한, 그러나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담당 · 추진하는 남북 정부당국의 공동기구라고 볼 수 있다. 민족통일기구가 두 정부당국만 참여하는 공동기구인지 아니면 정부당국, 정당,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공동기구인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북(조선)의 통일론에 비추어보면 전민족적인 공동기구라고 예상된다. 그렇지만 조국통일과업을 담당 · 추진하는 전민족적인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것에 대하여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세력의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은 현실조건에서 그러한 기구를 수립하더라도 처음부터 전민족적인 공동기구를 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부당국의 공동기구를 수립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숙된 단계에 가서 차츰 정당, 사회단체도 참여하도록 폭을 넓혀 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의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과업과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과업은 당분간 각각 분리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된 민족통일운동촉진기간에는 정당, 사회단체들이 조국통일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었다.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되면 그 기구는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두 정부가 종전대로 행사하게 하면서, 그 밖에

다른 권능을 하나로 통합해 가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민족통일기구는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아직 통합하지 못한 조건에서 두 정부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과도적 공동기구이므로 국가연합제 방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그 기구를 수립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가 제시했던 ≪남북연합≫을 수립하는 방안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이전에 내놓았던 3단계 통일론에 나오는 ≪공화국연합≫을 수립하는 방안, 곧 모든 형태의 국가연합방안과 모순되지 않는다.

민족통일기구가 남북 정부당국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공동기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그 지위, 역할, 권능의 문제에 관해서 남과 북의 정부당국은 좁히기 힘든 견해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 공동기구의 지위에 관련하여 남(한국) 정부는 남과 북의 정부 밑에 두고 상호협력하는 공동기구로 생각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북(조선)은 남과 북의 정부 위에 두는 공동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두 정부 산하의 공동기구냐 아니면 두 정부 상위의 공동기구냐 하는 데 따라서 그 권능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게 된다. 그 공동기구의 임무와 역할에 관해서도 남(한국) 정부는 남북 사이의 교류 · 협력기구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북(조선)은 조국통일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서울회담에서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자는 북(조선)의 비공식 제안에 대해서 남(한국) 정부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지금 북(조선)이 남북 정부당국의 협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과업은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과업이다. 남(한국)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남북 최고 지도자의 회담이 열리기만 하면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집권 말기에 들어서고 있는 남(한국)의 현 정권은 남북 정부당국의 정치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현하는 데서 무기력증을 노출하고 있다.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된다고 해도 아마 차기 정권에 가서야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당면과업을 생각할 때, 차기 정권을 세우는 2002년의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더라도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은 남북 정부가 종전처럼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되므로 조국통일은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통합하는 문제는 한 · 미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므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는 해결하기 힘들다. 민족통일기구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국통일과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는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통합하여 마침내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과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5) 민족민주전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할 전략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조국통일 실현이다. 이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몇 가지 당면과업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족민주전선은 제국주의세력을 한(조선)반도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한(조선)반도에서 민족민주전선의 반제투쟁은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반제전선에 가세 · 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조선)반도의 반제전선은 전민족적인 반제자주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의 투쟁이 벌어지는 전선으로 확장될 것이며, 그로써 반제전선의 결정적 승리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사실은, ≪가세 · 결집≫이라는 개념은 전술개념이 아니라 전략개념이라는 점이다. ≪가세 · 결집≫이라는 전략개념은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민족민주전선역량의 통일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개념이다. 반제자주역량의 통일전선이라는 말은, 강대한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반제투쟁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진 채 산발적, 분산적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반제투쟁은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단독역량으로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무릇 자주시대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반제전선은 한결같이 전민족적 통일전선이며, 한(조선)민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해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지금 한(조선)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반제전선은 군사 · 정치적 대결과 대중적 정치투쟁이라는 두 가지 전투를 전개하고 있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군사 · 정치적 대결을 벌이는 반제전선을 담당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민족민주전선역량은 국가역량을 동원할 수 없는 조건에 있으므로 대중의 조직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시킨 반제전선으로 강화 · 발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의 반제투쟁은 대중적 정치투쟁의 성격을 지닌다.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대중의 조직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시킨 민족민주전선역량이 단일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 때 반제전선의 승리는 반전시킬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질 것이다.

2)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부동의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한(조선)반도에서 반제전선을 민족통일전선으로 확대 · 발전시켜 승리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목표는 반제민족통일전선의 승리와 함께 실현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면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남(한국)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 · 수탈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한국)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 · 수탈구조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은 민중생존권 투쟁에 집중되어 있는 대중투쟁의 동력을 반미자주화운동으로 승화 ·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조선)반도에서 반제전선을 민족통일전선으로 확대 · 발전시켜 승리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목표는 반제민족통일전선의 승리와 함께 실현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면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의 중심에는 주한미군 철퇴운동을 배치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역량은 주한미군을 철퇴하기 위한 대중적 정치투쟁을 조직하고 영도하여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은 미국의 군사적 지배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사상적 예속, 미국의 정치적 지배, 경제적 수탈, 문화적 침탈을 반대 · 배격하여 친미예속체제 전반을 완전히 청산하는 총체적인 대중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미국은 조미 정치협상이 진전되는 데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군사고문단을 배치하여 군사적 지배의 고삐를 계속 틀어쥐고 있으려 할 것이며, 주한미군이 철수된다고 해도 미국에 대한 사상적 예속, 미국의 정치적 지배, 경제적 수탈, 문화적 침탈은 철군과 함께 저절로 청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은 정치 · 경제적 분야에서의 투쟁, 사상 · 문화적 분야에서의 투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반미노동조합운동, 반미농민회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반미청년학생운동, 반미여성운동, 반미문예운동이 생겨나면서 반미자주화운동의 거센 기운이 남(한국) 전역에 넘쳐나야 한다.

(2).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국가보안법체제를 타파하고 친미예속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가 청산되는 추세에 따라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된다고 해서 남(한국)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저절로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만일 민족민주전선역량이 남(한국)의 정세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친미예속세력은 여전히 집권하면서 친미예속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친미예속세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미예속체제가 자동적으로 해체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안이한 판단이다. 친미예속세력은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는 과정이 시작되면 자신을 유지 · 보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친미예속세력이 계속 집권하면서 국가체제를 장악 · 관리하고 있는 한, 정권기관과 사회 전반에 뿌리박혀 있는 친미예속체제는 쉽사리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미군이 철수한 뒤에도 친미예속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의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이 친미예속세력을 제압하는 투쟁에서 정치적 타격을 집중해야 할 지점은 국가보안법체제다. 그 체제는 친미예속세력이 의존하고 있는 존립근거이므로 그 근거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면 그 위에 성립되어 있는 체제는 무너지게 마련이다. 국가보안법체제를 타격하는 것은 우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으로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민족민주전선이 친미예속세력을 제거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투쟁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민족민주전선이 주한미군 철퇴투쟁을 중시하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부차적인 투쟁과업으로 생각하고 경시해서는 안 된다.

반제전선에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민주전선이 친미예속세력에 대한 투쟁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장하려면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 곧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의 조직역량을 중심축으로 전선을 재배치하고 전선역량을 일층 강화해야 한다. 친미예속체제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은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에 의해서 가해지게 된다.

(3).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는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정치조직의 최고 형태인 정당을 건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없다. 정당 건설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그 방법론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는 정당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주도≫라는 개념에 유의하여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역량이 그대로 정당으로 대체 ·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량이 주도하면서 다른 역량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일전선적 성격의 당을 건설해야 한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세 가지다.

ㄱ. 민족민주전선은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의 조직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청년, 학생, 여성, 지식인의 조직역량이 총결집된 위력적인 정치세력으로 강화 · 장성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대중의 조직역량이 전선역량의 중심에 확고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이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에 의해서 강화 · 장성되어야 통일전선적 성격의 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당 건설 이후에도 당의 모든 사업을 민족민주전선의 요구에 맞게 영도할 수 있다.

ㄴ.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정당 건설에 함께 해야 할 동반세력은 개혁세력이다. 지금 남(한국)의 현실을 보면, 친미예속세력과 개혁세력이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 친미예속세력이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가 하면 개혁세력이 친미예속의 늪지에서 허덕이고 있다. 집권상층부의 개혁세력은 고정불변의 친미예속성을 지니고 있어 개조대상이 될 수 없다. 조미 정치협상의 진전에 따라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고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으로 강화 · 장성된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이 상승되면, 집권상층부의 개혁세력은 그들의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 때문에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적 타격을 받고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소자산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중간층 개혁세력은 지금은 비록 친미예속성에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세발전의 요구에 따라 개조대상이 될 수 있다. 중간층 개혁세력은 소자산계급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층 민중의 계급적 요구에 부응할 능력이 없으며, 남(한국) 사회가 양극화되는 데 따라 차츰 분해되고 있는 소자산계급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중간층 개혁세력들 가운데서 끝내 친미예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력은 반미자주화운동의 타격을 받고 몰락하게 될 것이며, 반미자주화운동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조된 개혁세력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개혁세력에게서 친미예속성을 벗겨내고 개조하여 정당건설의 동반세력으로 포용해야 한다.

ㄷ. 통일전선적 성격의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전선과 개조된 개혁세력이 결집하되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게 될 정당이며, 앞으로 정세발전에 따라 차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예비하는 정당으로 발전될 것이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01년 9월 18일